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김현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11:16-33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자랑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9월 17일	9월 24일
장헬렌	류외자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아프니까 사람이다

사람은 참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픕니다. 어찌 보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아픈 것은 곧 마음이 아픈 것이란 말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함꼐 받으면 몸은 즉시로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좀 그만 받아요. 주인님, 내 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소리치죠. 우리가 감기鬱氣가 들었다고 할 때의 감鬱이라는 문자는, 근심할 감鬱, 원한怨恨 감鬱, 마음이 불안할 감鬱, 원한怨恨 품을 감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감기鬱氣가 모든 병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감기를 앓듯 우리 마음도 감기를 앓습니다. 그것이 우울증이나 여러가지 불안장애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우리 주변에는 감기 이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라는 감정은 무의식중에 작동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상처는 내가 의식하기 전에 먼저 작동을 해 버립니다. 그것을 의식으로 다스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화’는 밖으로 분출되는 유형과 안으로 스며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차라리 밖으로 분출되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긴 하겠지만 본인은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화’가 안으로 스며들때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심하면 중독이나 자학의 상태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며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망쳐도 제 자리일 뿐임을 경험은 무섭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감정이 시작되면 목사든,장로든,집사든, 타이틀이 중요치 않게 됩니다. 감기가 사람 골라가며 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다”(마9:13)

이런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으로 드레싱하시며 부활의 새 살로 그 상처를 채워주실 주님, 내가 할 일은 나의 상처를 그분께 맡기고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픕니다.